

아날로그 사진의 상징, 라이카 'M6 필름 카메라' 정식 재발매 및 신제품 발표

- 전세계 라이카 카메라 포토그래퍼들의 축제 'CoP' 개최, 신제품 공개
- 2014 M-A 필름 카메라 이후 8 년 만에 아날로그 카메라의 상징 '라이카 M6' 재발매 발표
- SL2-S 리포터 에디션, 주미룩스-M 35mm f/1.4 클래식 렌즈 공개



[사진 설명: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상징 라이카 M6, 사진 제공: 라이카 카메라]

전 세계 사진가들의 축제 CoP(Celebration of Photography)가 지난 20 일 독일 라이츠 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라이카 카메라는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상징이자 라이카의 M 시리즈 중 가장 상징적인 카메라로 불리는 '라이카 M6 필름 카메라'가 공식 재발매 된다고 밝혔다. 라이카 카메라의 필름 카메라 출시는 지난 2014 년 라이카 M-A 이후 8 년 만이다. 라이카 M6 카메라는 1984 년 첫 출시 이래로 여러 세계적인 사진가들과 전설적인 사진들을 만들어냈으며 대중들에게 라이카를 각인 시킨 카메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라이카 카메라의 M6 모델은 1984 년부터 2002 년도까지 175,000 대에 달하는 생산량을 기록하며 현대사를 대표하는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독일에서 수작업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 포토그래퍼의 관점을 담아내는 최고의 도구라 평가받았다.

M6 필름 카메라에 담긴 기계식 레인지파인더는 100 개가 넘는 부품을 하나하나 조합해 0.72 배 확대가 가능한 뷰 파인더가 적용되었다.

라이카의 기술운영 부사장 스테판 다니엘(Stefan Daniel)은 "라이카 M6 는 라이카 카메라 역사의 한 축과도 같다. 1984 년 출시 이래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수많은 사진을 탄생시킴은 물론, 단종 전 18 년의 기간 내내 뛰어난 가치를 지닌 카메라로 평가받고 있다" 말하며 "디지털의 흐름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날로그에 대한 열망을 꽃피우는 지금, M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M6 를 다시 출시하며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전했다.

본 자료는 10 월 21 일부터 사용가능 합니다.

수십 년간 전설적인 사진들을 기록해오며 스스로가 전설이 된 라이카 M6 는 직관적이고 콤팩트하며 정교하다. 단순함에서 오는 우아한 디자인과 절대적인 안정성, 고품질 소재의 만남으로 클래식 가치를 증명했다. 스크래치에 강한 광택제, 견고한 황동 상판, 그리고 튼튼한 인조 가죽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유리 표면에 적용된 저반사 코팅은 산란광의 방해를 차단해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상징적인 1984 년도 디자인에 충실함과 동시에 라이카 카메라의 시그니처인 레드 라이트(Leitz) 로고가 적용되어 상징성을 강조한다. 또한, 라이카 M6 필름 카메라는 세계 최고의 광학 걸작을 만들어 내는 라이카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수작업을 통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Made in Germany 라는 진실한 가치를 지켜내어 더욱 의미가 크다.



[사진 설명: 주미룩스-M 35mm f/1.4 클래식, 사진 제공: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또한, 라이카 카메라는 '예술의 귀환'이라 불리는 클래식 렌즈 주미룩스-M 35mm f/1.4 (Leica Summilux-M 35 f/1.4) 와 SL2-S 리포터 에디션을 새롭게 공개했다.

1961 년 출시 이래로 '보케의 진정한 강자(King of Bokeh)'라 불리는 주미룩스-M 35 f/1.4(Leica Summilux-M 35 f/1.4) 클래식 렌즈가 재발매 된다. 1961 년 모델과 거의 유사한 광학 디자인과 동일한 빈티지 외관에 200g 이라는 초경량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주마론-M 28 f/5.6 (Summaron-M 28 f/5.6), 탐바-M 90 f/2.2 (Thambar-M 90 f/2.2), 녹티룩스-M 50/1.2 ASPH. (Noctilux-M 50 f/1.2

본 자료는 10 월 21 일부터 사용가능 합니다.

ASPH)와 함께 라이카 클래식 렌즈군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주미룩스-M 35 f/1.4 렌즈는 M 시스템 카메라를 위한 프라임 렌즈로 최소 조리개 값에서 뛰어난 보케와 비넬트 현상을 자랑한다. 역광에서 조리개를 개방해 촬영할 경우 의도된 렌즈 플레어를 만들어내 특별한 특수효과로 활용할 수 있고, 낮은 조리개 값에서는 왜곡이 거의 없어 모든 요구에 부합하는 샤프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후반작업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몽환적인 사진도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다.



[사진 설명: 라이카 카메라 SL2-S 리포터 에디션, 사진제공: 라이카 카메라]

라이카 카메라의 르포르타주 정신을 표현한 'SL2-S 리포터 에디션'도 이번 행사에서 함께 발표되었다. 쉽게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사진 및 영상 저널리즘' 촬영에 입각한 리포터 에디션은 아라미드(Aramid) 섬유를 활용해 매트한 녹색으로 마감되어 온도 변화, 먼지 및 물의 방해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차분한 디자인으로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한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의 전설이라 불리는 M6 는 11 월 3 일부터, 35mm 주미룩스 클래식 렌즈와 SL2-S 리포터 에디션은 10 월 21 일부터 국내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라이카 카메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leica-store.co.kr/>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eica_kr/